

## '우리들의 블루스' 정은혜 美 뉴욕서 개인전

입력 2023.09.03. 오후 2:41 수정 2023.09.03. 오후 2:43

"아름다운 풍경도 계속 그리고 싶어"

발달장애인 작가 정은혜가 오는 1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개인전을 연다. 3일 케 이리즈갤러리에 따르면 유기견에서 반려견이 된 지로와 다양한 인물을 그린 작품 들을 뉴욕 첼시에 있는 리코/마레스카 갤러리에서 소개한다.



전시작은 국내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다. 오는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케 이리즈갤러리에서 약 스무 점을 전시한다. 정 작가는 "그동안 사람들 얼굴을 많이 조 명했는데, 이번 지로처럼 개, 고양이, 나무, 꽃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도 계속 그리 고 싶다"고 말했다.

정 작가는 2016년부터 경기 양평의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초상화를 그려왔다. 지난해에는 드라마 '우리들의 블루스'에서 이영옥(한지민)의 언니 이영희를 연기해 대중적 사랑을 받았다.

이종길 기자 [leemean@asiae.co.kr](mailto:leemean@asiae.co.kr)

Copyright © 아시아경제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